

봄철 사육관리의 유의점



협회위촉수의사 김 찬 규

봄이 되면 얼어 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여 사육장내가 질척거리며, 겨울동안 제대로 청소를 잘 하지 못하므로 배변물 등 오물과 사료찌꺼기 등이 쌓여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오물들은 한곳에 긁어 모아 태워 버리도록 하며 사육장 내의 바닥은 새로운 흙과 강회를 섞어 뿌려 정지작업을 하면 소독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햇볕이 나는 맑은 날을 택하여 "하라솔"과 같은 소독약을 써서 사육장내를 분무하여 소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철은 모든 생물이 긴 겨울을 보내고 활기를 찾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이다. 사슴도 생리적 기능은 활성화되고 운동량도 많아지며 식욕도 왕성해서 사료의 섭취량도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슴의 피모가 거칠고 등이 굽어 있거나 마르고 활동상태가 활발하지 못하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징후이다. 대체로 겨울철에 사양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피모상태만 보아도 의견상 쉽게 구별될 수 있다. 봄철은 겨울동안 입었던 긴 털을 벗어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 입는 시기이다. 이것을 환모(털갈이)라고 하는데 만일 환모가 아닌 탈모(털이 빠지거나 부스러

짐)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정상이 아닌 병적 증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영양대사장애로 기인되며, 심하면 탈모된 피부조직이 노출되어 거뭇게 변하며 피부조직이 비후해 지거나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감염되어 소양증(가려움증)을 발하는 피부병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대개 영양상태가 좋고 건강한 사슴일수록 정상적인 환모는 빨리 이루어지나 기온에도 영향을 받아 따뜻한 지역일수록 환모시기는 빠르다. 겨울동안 사양표준에 의거 충분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1:3 비율로 급여하여온 농장은 별 이상이 없으나 건초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농후사료에 의존하거나 저질의 건초나 가랑잎 등을 급여한 농장에서는 영양상태의 불균형과 체내 대사장애를 초래하여 탈모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빨리 격리하여 집중적으로 사양관리를 해야하며 영양대사촉진제를 사료에 혼합투여하므로써 피부의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여 새로운 털이 빨리 재생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봄철은 수사슴에 있어서는 낙각(뿔이 떨어짐)시기이므로 낙각전부터 영양관리를 잘하면 낙각이 빨리 이루어지며 녹용의 생산량

도 증가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단백질의 공급을 사료의 20% 정도로 올리기 위해 콩을 약간씩 사료에 섞어 급여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간혹 뿔을 잘 자라 나오도록 한다든지 또는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콩이나 옥수수, 밀 등을 과잉 급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위내에 부담을 주고 균형을 깨뜨리므로서 급성식체나 탄수화물 과식증 및 장염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사료는 위내에서 분해될 때 많은 산을 발생케하며 이것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장을 무력하게 하므로써 소화불량이나 식체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위내가 산성화 되면 유해한 균인 그람 양성균의 번식이 증가하고 반면 유익한 미생물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소화기장애를 초래하고 장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늦은 봄이 되면 새로운 풀이 자라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사료인 건초가 부족하다고 하여 성급히 막 자라나오는 풀잎이나 싹을 베어다 먹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싹은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때로는 유해할 뿐 아니라 풀의 경우는 채취시 뿌리채 뽑아 주는 경우가 많아 흡수에 잠재되었던 혐기성균들이 채식시 체내로 들어가 증식되므로써 장염이나 장독혈증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한 설사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는 이러한 질병의 증상으로 일단 발병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불량하므로 무엇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풀이나 나무잎이 충분히 자라 베어 먹일 때는 채취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적어도 3~4시간 말린 다음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만일 햇볕을 오래 쬐인 풀을 즉시 베어 먹이게 되면 체내에 들어가 가스를 형성하는 고창증에 걸릴 위험이 수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건초에서 청초로 바뀌는 사료의 변경시기에는 서서히 조금씩 섞어 가면서 바꿔야 하며 약 15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작스런 사료의 변경은 위내의 균형을 깨트려서 식체나 설사를 동반하는 장염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봄철은 사슴뿐 아니라 사육자에게도 중요한 시기로 수컷은 뿔이 자라나와 녹용을 채취해야 하므로 양질의 녹용과 녹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미리 내부기생충 구충을 실시하여 사슴의 건강은 물론 신선한 녹혈과 녹용을 생산하도록 위생적 관리를 해야하며, 뿔이 자라나는 동안 상처를 받거나 뿌러지지 않도록 시설물을 점검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암컷의 경우는 대개 임신중이므로 복부의 팽대를 볼 수 있는데 임신말기에 가면 사슴의 우측 복부가 뚜렷이 팽대되며 태아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다. 분만시 난산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분만 2~3개월전 부터는 농후사료의 양을 약간씩 줄여 비대하게 살이 찌지 않도록 사양관리를 하며 가벼운 운동을 시켜 과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만 새끼를 힘들이지 않고 순산할 수 있다. 특히 분만기에 가까워지면 불안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시설물 등은 배제되어야 하며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야생동물병원장)